

## 만 3·4·5세 유아의 존댓말 습득에 관한 연구\*

A Study to the Acquisition of Honorific Markers by Three-, Four-,  
and Five-year-old Young Children\*

박진이(Jin-lee Park)<sup>1)</sup>

김민진(Min-Jin Kim)<sup>2)</sup>

###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Korean young children's acquisition of honorific expressions. The participants of the present study were 297 young children (ages 3-5 years) from Kyunggi province. The results of the study showed that young children acquire honorific markers in the order of hearer-honorific expressions, subject-honorific expressions, and then object-honorific expressions. Five-year old children acquired at least 75% of the hearer-honorific expressions. The result can be explained by the fact that most of them were used in greetings. Even though more than 90% of five-year old children acquired the subject-honorific marker *si*, the acquisition rates of subject-honorific nouns and subject-honorific verbs were less than 10%. Finally, the acquisition rates of object-honorific expressions were less than 20%, with the exception of the object-honorific noun *ce*. The results of the study suggest that educational programs should be developed in order to facilitate the acquisition of honorific markers in young children.

**Key Words** : 존댓말(honorifics), 언어습득(language acquisition), 습득순서(acquisition order).

---

\* 본 논문은 2010년도 중앙대학교 석사학위 청구논문의 일부임.

<sup>1)</sup> 성남 하원초등학교 병설 유치원 교사

<sup>2)</sup> 중앙대학교 유아교육과 조교수

**Corresponding Author** : Min-Jin Kim, Department of Early Childhood Education, Chung-Ang University, Seoul 156-756, Korea  
Email : mjkim@cau.ac.kr

## I. 서 론

### 1. 연구의 필요성

자신이 속한 사회의 구성원들과 원만한 관계를 맺고 살아가기 위해서 개인들은 자신이 속한 사회집단에서 요구되는 규범을 이해하고 실천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도록 요구된다. 특히 성공적인 인간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대화가 이루어지는 사회적 맥락 속에서 요구되는 상호작용 규범, 즉 ‘언제, 어디서, 누구와 어떤 방식으로 무엇에 대해 말해야 하는지’를 이해하고 실행할 수 있는 의사소통 능력(communicative competence)을 갖추는 것이 필수적이다(Hymes, 1971). 우리나라에서는 예로부터 자신을 겸손히 낮추고 남을 존중하는 격식을 갖추기 위해서 사용되는 존대법이 다른 사람, 특히 웃어른을 대할 때 반드시 지켜야 할 중요 언어예절 덕목의 하나로 강조되어 왔다.

외국어의 경우에도 대화를 나누는 대상에 따라 언어 양식을 사용하는 경우가 없지 않다. 예를 들면 영어의 경우 화자가 대화를 나누는 대상의 지위와 나이에 따라 다른 호칭을 사용한다(Brown & Ford, 1961; Ervin-Tripp, 1972). 이에 비해 우리말의 존대법은 단순한 호칭을 넘어 용언의 활용과 특수 어휘를 사용하는 두 가지 형식으로 매우 체계적으로 발달되어 있다. 언어예법인 존대법을 사용하는 언어는 한국어 이외에 자바어, 일본어 등이 있을 정도로 존대법은 특정 언어에서만 나타나는 언어현상으로서 특정 문화집단의 특성과 사회적 관습 등이 반영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김우진, 2006; Geertz, 1976; Ide, 1982). 웃어른을 대함에 있어 공경과 예의범절이 강조되는 우리나라에서는 웃어른에게 적합한 존댓말을 사용하지 않을 경우 정확한 언어사용을

했는지 여부를 넘어 올바른 품성과 도덕성이 결여된 것으로 판단되기 쉬우며 이에 따라 주변 사람들과 원만한 인간관계를 맺는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존대법의 종류와 명칭에 관해서는 국어 학자들 간에 논란이 있기는 하지만 일반적으로 존대의 대상에 따라 문장의 주체를 높이는 주체 존대법, 자기를 낮춤으로써 상대방을 높이는 상대 존대법, 그리고 목적어나 기타 부사격으로 등장하는 객체를 높이는 객체 존대법으로 나누어진다(박상수, 1994). 주체 존대법은 굴곡 어미 ‘-(으)시-’, 주격 조사 ‘-께서’, 「대」과 같은 존대명사와 ‘편찮으시다’와 같은 존대동사 등 특수 어휘에 의해 실현된다. 청자 존대법이라고도 불리우는 상대 존대법은 아주 높임을 나타내는 ‘합쇼’체, 예사 높임의 ‘하오’체, 그리고 두루 높임을 나타내는 ‘해요’체 등에 의해 실현되고 마지막으로 객체 존대법은 부사격 조사 ‘-께’와 존대어휘(존대 명사나 객체 존대 동사)에 의해 실현된다.

우리말의 존대법은 그 구조가 체계적으로 발달되어 있고 복잡하기 때문에 성인의 교육이 필요하다. 특히 근래에 들어 여러 가지 사회적 변화에 의해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상당수가 제대로 존대법을 이해하지 못하거나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가정뿐만 아니라 학교에서 존대법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김진희, 2001; 임홍빈 · 안명천 · 장소원 · 이은경, 2007). 과거 대가족 사회에서는 웃어른에 대한 존대법 교육이 가정의 일상생활 속에서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았지만 핵가족 중심의 가족 구조가 확대되었을 뿐만 아니라 부모 또는 조부모에 대한 반말 사용이 마치 친밀함을 나타내는 것으로 받아들여지기도 하는 등 존대법 사용이 위기를 맞게 되었다(김세원, 2009; 김정신 · 정혜

은·조희진, 2004; 이귀옥, 1997). 가정과 사회에서의 존대법을 포함한 전반적 예절 교육이 소홀히 됨에 따라 유아교육기관에서의 언어예절을 포함한 예절교육 강화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김정신·정혜은·조희진, 2004). 올바른 언어습관을 포함한 예절교육은 생활교육으로서 언어, 사회성 그리고 인지 발달 등 인간의 성장과 발달에 있어 결정적 시기인 유아기부터 일찍 시작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강조되고 있다(박찬옥, 1994; 이미령, 1995; 이행숙, 2000; 주영애·이영애, 1999).

2007 개정 유치원 교육과정 역시 유아기 존댓말 교육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사회생활 영역 예절교육 내용으로 그리고 언어생활 영역 말하기의 주요 교육내용으로 명시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사회생활 영역의 하위 교육내용인 예절 바르게 생활하기의 공통 수준 내용으로 ‘친구와 어른께 인사한다’를 제시하고 있다. 또한 언어생활 영역의 말하기에서 ‘어른께 존댓말을 사용한다’와 ‘상황과 대상에 적절하게 예절 바른 언어를 사용한다’를 수준별 내용으로 명시하고 있다(교육과학 기술부, 2007). 즉, 존댓말을 만 3, 4, 5세 유아교육내용으로 명시함으로써 유아기부터 웃어른을 대할 때 예의바르게 언어를 사용할 수 있는 자질을 갖추도록 교육하는 것이 유아의 언어 사용 능력 증진뿐만 아니라 유아가 올바른 품성을 지닌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하도록 돕기 위해 필요함을 강조하고 있다.

유아들에게 존대법을 적절히 가르치기 위해서 무엇보다 필요한 것은 유아들의 존대법 발달 단계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유아들이 언제부터 어떻게 존대법을 배우고 실제로 얼마나 상황에 맞게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구체적 정보는 유아의 발달에 적합한 존대법 교수학습 활동을 수립하고 실천하는데 있

어 주요 기초 자료가 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영유아의 존대법 습득과 관련된 연구는 소수에 그치고 있다.

영유아의 존대법 습득을 살펴본 연구로는 조명환(1988), Lee(1990), Kim(1997), 이귀옥(1997), 이순형(2001), 김명순·강옥경·임양미(2008)의 연구가 있다. 먼저 다섯 명의 영아를 대상으로 형태소 출현을 연구한 조명환(1988)은 2세를 전후하여 영아들은 상대 존대법 관련 어미 ‘-요’를 사용하기 시작한다고 밝히고 있다.

Lee(1993)는 연구자의 두 자녀를 대상으로 유아의 존대법 습득을 조사하였는데 ‘-요’가 ‘-시’보다 먼저 나타날 뿐만 아니라 ‘-요’를 ‘-시’보다 맥락에 맞게 안정적으로 잘 사용한다고 보고하였다. 그는 이 현상을 Slobin(1973, 1985)이 유아들이 더 쉽게 지각할 수 있는 문장 끝에 나오는 표현을 더 빨리 습득한다는 원리로 설명하였다. 즉 ‘-시’는 서술 어간 다음에 위치하여 쉽게 지각되지 않는 반면 ‘-요’의 경우 항상 문장의 제일 끝에 위치하게 되어 유아가 쉽게 지각하게 되고 이에 따라 ‘-요’를 먼저 습득하게 된다는 것이다.

Kim(1997)은 다섯 명 유아들의 자발발화 자료를 분석하여 존대법의 출현에 대해 조사해 본 결과 개별 유아 간의 존대법 습득 정도는 유아의 가정환경에 따라 큰 차이가 있다고 보고하였다. 구체적으로 가족들이 유아와의 상호작용 중에 존대법을 얼마나 사용하는지와 유아의 존대법 사용을 얼마나 격려하는지에 따라 유아의 존대법 습득에 차이가 난다고 하였다. 또한 ‘-요’나 ‘-시’로 끝나는 문장들이 본문에 많이 포함된 그림책을 유아들이 부모들과 많이 읽는 것 역시 유아의 존대법 습득에 큰 영향을 미치며 그림책 읽기가 생활화되어 있는 중산층 유아들은 2~3세경에 ‘-요’와 ‘-시’를 사용하기 시작한다고 보

고하였다.

이귀옥(1997)은 19개월~36개월 유아 20명을 대상으로 유아의 존대법 습득을 조사하였는데 유아들이 가장 먼저 사용한 존대법은 문장 말미에 '-요'를 붙이는 형태(예 : 이거 뭐예요)라고 밝혔다. '-요' 다음으로 나타나는 형태는 '-세요'를 문장에 덧붙이는 형태(예 : 안녕히 가세요)라고 보고하였다. 하지만 '-세요'의 경우 자발발화 상황에서는 나타나지 않았으며 어머니가 선행하여 말하고 유아에게 따라하도록 하는 형식으로 시작되었다고 보고하였다. 또한 '-요'나 '-세요' 등의 상대법 존대는 3세경에 상당히 활발하게 사용된 반면 존대명사 「진지」와 존대동사 '드리다'와 같은 존대어휘는 거의 사용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순형(2001)은 18개월부터 60개월 유아 174명의 유아를 대상으로 문법적 형태소의 획득 순서 및 시기를 조사하면서 존대법 습득을 연구의 한 부분으로 다루었다. 특히 이 연구는 36개월부터 60개월, 즉 만 3, 4세 유아를 연구대상에 포함시킴으로써 영아뿐만 아니라 36개월 이상 유아의 존대법 습득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연구적 가치가 있다. 연구 결과 상대 존대법 관련된 어미 '-요'의 사용은 만 2세 이후에 비교적 쉽게 획득된 반면 주체 존대 주격 조사 '께서'는 만 3, 4세 소수의 유아만이 습득한 것으로 나타났다.

36개월 이상 유아의 존대법 사용을 조사한 또 다른 연구로는 김명순·강옥경·임양미(2008)의 연구가 있다. 만 3, 4, 5세 유아 788명의 어머니를 연구대상으로 유아의 존대법 사용 실태와 어머니의 인식 관계를 살펴본 결과 유아의 존대법 사용 정도는 4점 만점에 2.91로 상당히 높았으며 유아의 연령이 높아질수록 존대어법을 더 잘 사용한다고 보고하였다. 그리고 부모가 자녀

의 존대법 사용이 중요하다고 인식할수록 그리고 부모의 연령이 높을수록, 순위 형제·자매가 있는 경우 유아의 존대법 사용 정도가 높았다고 보고하였다.

선행연구 결과들을 통해 우리나라 영유아의 경우 존대법 출현은 만 2세를 전후로 이루어지며 가정 변인, 특히 존대법 교육의 필요성에 대한 어머니의 인식, 순위 형제·자매의 존재, 그리고 책 읽기 등이 유아의 존대법 습득의 주요 변인들로 밝혀졌다는 점에서 선행연구들이 공헌하는 바가 크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영유아의 존대법 발달 및 습득을 종합적으로 파악하는 데 있어 선행연구들은 연구 대상과 연구의 범위, 그리고 연구 방법 측면에서 한계를 가지고 있다. 예를 들어 이순형(2001)의 경우 만 3, 4세를 연구대상에 포함시키고 있지만 만 5세 유아를 포함시키지 않았으며 12개의 형태소의 하나로 경어를 조사함에 따라 조사 범위가 주격 조사 '께서'와 상대 존대법 관련된 어미 '-요'에 한정되어 있다. 만 5세의 경우 의사소통에 별 지장이 없을 정도로 모국어 발달이 어느 정도 완성 단계에 접어들게 되며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적절한 존대법 사용은 원활한 의사소통능력의 기초가 됨을 고려할 때 후속 연구에서는 만 5세를 포함하여 존대법 습득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이영자, 2009; 주영희, 2001). 또한 존대법의 경우 존대법에 의해 실현되며 존대법은 존대 대상에 따라 주체 존대법, 상대 존대법 그리고 객체 존대법의 하위 체계로 나누어지며 하위 체계별로 다양한 실현방법이 사용된다. 따라서 유아의 존대법 습득을 보다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서는 주체, 상대, 객체 그리고 각 하위 체계별 실현방법으로 나누어 체계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또한 김명순 외(2008) 연구의 경우 만 3, 4, 5세 유아 어머니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

사 방식을 취하고 있어 부모의 직접적 관찰이 이루어지지 않는 다양한 상황에서의 유아들의 존댓말 사용을 파악하는 데는 한계가 있을 수 있다고 판단된다.

이러한 선행연구들의 한계점을 극복하고 유아기 존댓말 습득을 보다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 후속연구에서는 만 3, 4, 5세 유아를 모두 대상에 포함시킬 필요가 있으며 존댓말을 실제적으로 사용하는 유아를 대상으로 존댓말 습득과 사용을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이와 같은 연구의 필요성에 따라서 본 연구는 만 3, 4, 5세 유아를 대상으로 하여 주체 존댓말, 상대 존댓말, 객체 존댓말 습득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에 본 연구의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 <연구문제 1> 만 3, 4, 5세 유아의 주체 존댓말 습득은 어떠한가?
- <연구문제 2> 만 3, 4, 5세 유아의 상대 존댓말 습득은 어떠한가?
- <연구문제 3> 만 3, 4, 5세 유아의 객체 존댓말 습득은 어떠한가?

## II. 연구방법

### 1. 연구 대상

본 연구의 대상은 만 3, 4, 5세 유아 297명이다. 연구 대상 수집은 군집 표집 방법을 통해 이루어졌으며, 경기도 성남시에 있는 국·공립 유치원 중 만 3, 4, 5세 학급이 있는 모든 유치원 목록 중에서 무작위로 선정하여 전화로 연구 참여 협조를 요청하였다. 협조 요청 결과 만 3세 유아반을 운영하는 유치원 여덟 곳, 만 4세 반을 운영하는 유치원 여덟 곳, 만 5세

<표 1> 연구 대상 유아의 연령 및 성별 빈도와 백분율

연령 성별	만 3세 (%)	만 4세 (%)	만 5세 (%)	합계 (%)
남 아	42(14.1)	51(17.2)	51(17.2)	144( 48.5)
여 아	43(14.5)	58(19.5)	52(17.5)	153( 51.5)
합 계	85(28.6)	109(36.7)	103(34.7)	297(100.0)

반을 운영하는 유치원 5곳이 연구 참여 수락을 알려왔다. 연령별로는 만 3세 유아 85명, 만 4세 유아 109명, 만 5세 유아 103명으로 총 297명의 유아가 최종 연구 대상으로 선정되었다. 연구 대상 유아의 연령 및 성별 빈도와 백분율은 <표 1>과 같다.

### 2. 연구 도구

본 연구에서 유아의 존댓말 습득을 조사하기 위해 사용한 도구는 유아의 존댓말 습득에 관한 선행연구와 참고문헌을 참고하여 본 연구자가 공동연구자와 함께 4단계를 거쳐 개발하였다. 첫 번째 단계에서는 일상생활에서 유아가 존댓말을 사용해야 하는 상황 14개를 추출하였다. 10개의 상황(취침 및 기상, 잘못을 말할 때, 고마움을 말할 때, 부모가 출퇴근할 때, 어른을 만났을 때, 식사할 때 전화 건 사람에게 어른 부재 여부를 말할 때, 어른의 병환을 말할 때, 어른에게 말씀을 전할 때)은 선행연구(김명순 외, 2008)에서 추출하였다. 그리고 나머지 4개 문항(어른께 부탁을 드릴 때, 어른의 질문에 대답할 때, 어른께 축하드릴 때, 유치원에 갈 때와 돌아왔을 때)은 2007 교육과정 지도서(교육과학기술부, 2007), 유아 언어교육 전문 서적(이영자, 2009), 유아 사회 교육 전문 서적(이은화·김영옥, 2008; 조은주·최일선, 2008) 등의 문헌에서 추출하였다.

두 번째 단계에서는 추출된 각 상황별로 유아

<표 2> 최종 선정된 존대법 검사 문항

체계	하위 요소	존대법
주체 존대법	선어말 어미 ‘-(으)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우유<u>주세요</u>.</li> <li>•<u>옛날이야기</u> <u>해 주세요</u>.</li> </ul>
	주격 조사 ‘-께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어머니<u>께서</u> 우유 사오라고 하셨어요.</li> <li>•할머니<u>께서</u> 배가 아프셔요.</li> </ul>
	존대 명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할머니 <u>댁에</u> 가요.</li> <li>•할머니, <u>생신</u> 축하드려요.</li> <li>•할아버지, <u>진지</u> 드세요.</li> <li>•할머니, <u>연세가</u> 어떻게 되세요?</li> </ul>
	존대 동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할머니 <u>다</u> <u>잡수셨어요?</u></li> <li>•어머니<u>께서는</u> 안 <u>계셔요</u>.</li> <li>•할머니<u>께서</u> <u>편찮으셔요</u>.</li> </ul>
상대 존대법	‘하십시오’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죄송합니다. <u>고맙습니다</u>.</li> <li>•다녀오겠습니다. <u>다녀왔습니다</u>.</li> <li>•잘 <u>먹겠습니다</u>.</li> </ul>
	‘해요’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안녕히 <u>주무세요</u>. 안녕히 <u>주무셨어요?</u></li> <li>•안녕히 <u>다녀오세요</u>. 안녕히 <u>다녀오셨어요?</u></li> <li>•안녕하세요? 안녕히 <u>계세요</u>.</li> </ul>
객체 존대법	부사격 조사 ‘-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할아버지<u>께</u> 선물을 드려요.</li> <li>•선생님<u>께</u> 여쭙어 보자.</li> </ul>
	존대명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u>제</u> 이름은 ○○○입니다.</li> <li>•<u>제가</u> 할게요.</li> </ul>
	존대 동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할아버지<u>께</u> 선물을 <u>드려요</u>.</li> <li>•선생님<u>께</u> <u>여쭙어</u> 보자.</li> </ul>

가 사용하도록 요구되는 존댓말 28개 문항을 작성하였다. 구체적으로 주체존대법 11개 문항, 상대존대 11개 문항 그리고 객체존대 6개 문항을 제작한 다음 문항의 적절성을 중등학교 국어 교사 2인으로부터 확인받았다. 세 번째 단계에서는 미술교육 전문가에게 14개의 존댓말 상황을 그림으로 그려줄 것을 의뢰하였으며 유아에게 물을 질문도 함께 구성하였다. 네 번째 단계에서는 제작된 검사 도구를 사용하여 예비 검사를 실시하였다. 예비 검사 결과 그림 속 인물 중 이웃 어른의 모습이 너무 젊게 표현된 것으로 나타나 좀 더 나이 들어 보이도록 얼굴에 주름을 그려

넣어 수정하였다. 2차 예비 검사를 실시하여 수정된 그림과 질문 내용의 적절성을 확인한 후 검사도구 제작을 완료하였으며, 최종 선정된 존대법 검사 문항은 <표 2>와 같다.

### 3. 연구절차

#### 1) 검사자 훈련

만 3, 4, 5세 유아의 존대법 습득 조사는 본 연구자와 보조 검사자 2인(유치원 교사 경력 4년)이 함께 실시하였다. 예비 검사 실시 전, 본 연구자가 보조 검사자 2인에게 연구 도구의 특성과

검사 방법에 대하여 자세히 설명한 후 만 3세 두 명, 만 4세 두 명, 만 5세 유아 두 명에게 예비적으로 실시하도록 하였다. 예비 검사 후 본 연구자와 보조 검사자 2인이 다시 모여 검사 방법에 대하여 논의하고 숙지하는 시간을 가졌다.

## 2) 본 조사

2009년 11월 3일부터 11월 30일까지 4주간 동안 만 3, 4, 5세 유아 297명을 대상으로 존댓말 습득 검사를 실시하였다. 존댓말 습득 조사는 주로 오전 이야기 나누기 및 자유 선택 활동 시간을 이용하여 약 30분간 진행되었으며, 유치원의 실정에 따라 원무실, 유희 교실, 도서실, 유희실 등 조용한 장소에서 개별적으로 실시하였으며 유아 한 명당 검사를 실시하는데 10분 정도가 소요되었다. 검사는 검사자와 유아가 마주 앉아 그림 카드를 살펴볼 수 있는 시간을 준 후, 검사자가 그림카드를 가리키며 “○○는 이럴 땐 어떻게 말해야 할까?” 하고 질문을 한 후, 유아들의 대답을 검사자가 있는 그대로 질문지에 기록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채점은 본 연구자와 검사에 참여한 보조 검사자 1인이 함께 실시하였으며 다른 보조 검사자 1인에게 채점이 정확하게 이루어졌는지를 확인하도록 하였다. 채점은 각 상황에 요구되는 존댓말 실현 요소를 넣어 정확하게 존댓말을 사용한 경우 1점을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0점을 부여하였다. 존댓말에 따라 하나의 문장에 존댓말 실현 요소가 2개 이상 요구되기도 하였는데 하나라도 정확하게 사용하지 않은 경우 0점으로 처리하였다. 예를 들면 「할아버지께 선물을 드려요.」의 경우 객체 부사격 조사 ‘-께’와 존대 동사 ‘드려요’를 모두 정확하게 사용한 경우에 1점을 부여하였으며 부분점수는 부여하지 않았다. 유아들이 받을 수 있는 점수는 최소 0점에서 최고 28점

이다. 존댓말의 하위 체계에 따라 살펴보면 주체 존댓말 0~11점, 상대 존댓말 0~11점, 객체 존댓말 0~6점이다.

## 3) 자료처리 및 분석방법

채점 결과는 SPSS Win 14.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일원 분산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집단 간의 차이가 있는 경우 어느 연령 간에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기 위해 Tukey 사후 검증을 실시하였다.

## Ⅲ 연구결과 및 해석

본 연구는 주체 존댓말, 상대 존댓말, 객체 존댓말에 따른 연령별 유아의 존댓말 습득 정도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수집된 자료의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 1. 유아의 주체 존댓말 습득

주체 존댓말의 습득과 관련하여 만 3, 4, 5세 유아의 선어말 어미 ‘-(으)시’의 습득, 주격 조사 ‘-께서’, 주체 존대 명사 「택」, 「생신」, 「진지」, 「연세」 그리고 주체 존대 동사 ‘잡수시다’, ‘계시다’, ‘편찮으시다’의 습득 정도를 알아보기 위하여 일원 분산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연령별 집단 간 차이가 있는 경우 어느 연령 간에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기 위해 Tukey 사후 검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는 <표 3>과 같다.

<표 3>에 제시된 바와 같이 주체 존댓말 습득의 경우 선어말 어미 ‘-(으)시’, 존대명사, 존대동사, 주격조사 ‘-께서’의 순으로 습득한 것으로 나타났다. 취학 전 유아기에 습득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지는 주체 존댓말 실현 요소는 선어말 어미 ‘-(으)시’ 정도인 것으로 나타났다.

&lt;표 3&gt; 유아의 주체 존대법 습득

존대법 실현 요소	존댓말	만 3세		만 4세		만 5세		F	비고
		M	SD	M	SD	M	SD		
선어말어미 '-(으)시'	1. 우유 <b>주세요</b>	.79	.41	.86	.35	.88	.32	1.78	
	2. 할아버지, 옛날이야기 <b>해주세요</b>	.67	.47	.81	.40	.89	.31	7.50*	3 < 4, 5
주체 존대 명사	1. 댁	.06	.24	.23	.42	.38	.49	14.53*	3 < 4 < 5
	2. 생신	.05	.21	.27	.44	.51	.50	29.72*	3 < 4 < 5
	3. 진지	.05	.21	.15	.36	.32	.47	13.46*	3, 4 < 5
	4. 연세	.00	.00	.02	.13	.14	.34	11.27*	3, 4 < 5
주체 존대 동사	1. 잡수시다	.00	.00	.00	.00	.02	.14	1.90	
	2. 계시다	.05	.21	.06	.24	.09	.29	.86	
	3. 편찮으시다	.00	.00	.00	.00	.00	.00	.	
주격 조사 '께서'	1. 어머니 <b>께서</b> 우유 사오라고 하셨어요	.00	.00	.00	.00	.00	.00	.	
	2. 할머니 <b>께서</b> 배가 아프세요	.00	.00	.00	.00	.01	.10	.86	

\* $p < .05$ .

먼저 선어말 어미 '-(으)시-'의 경우 만 3세에 이미 안정적 습득(약 70%)이 이루어지며 연령이 높아짐에 따라 그 습득 역시 증진되다가 만 5세 경에는 대다수(약 90%)의 유아들이 사용할 수 있을 정도로 그 습득이 크게 증진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아주머니, 우유 주세요.」 문항의 경우 만 3세 유아의 79%, 만 4세 유아의 86%, 만 5세 유아의 88%가 선어말 어미 '-(으)시'를 사용하여 정확하게 존대법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할아버지, 옛날이야기 해 주세요.」 문항의 경우 만 3세 유아의 67%, 만 4세 유아의 81%, 만 5세 유아의 90%가 선어말 어미 '-(으)시'를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선어말 어미 '-(으)시'의 경우 초등학교 취학 전에 대다수의 유아들이 습득함을 시사한다.

선어말 어미 '-(으)시'와는 달리 존대명사의 습득율은 만 5세가 되어도 50%에도 미치지 못해 습득이 아직 안정적이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주체 존대 명사 「댁」의 경우 연

구 만 3세 유아의 6%, 만 4세 유아의 23%, 만 5세 유아의 38%가 정확하게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체 존대 명사 「생신」의 경우에도 연구 대상 유아 중 만 3세 유아의 5%, 만 4세 유아의 27%, 만 5세 유아의 51%만이 정확하게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체 존대 명사 「진지」의 경우 연구 대상 유아 중 만 3세 유아의 5%, 만 4세 유아의 15%, 만 5세 유아의 32%가 「진지」라는 존대 명사를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만 4, 5세 유아의 존대명사 습득 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다는 통계 결과는 서서히 습득이 이루어짐을 보여준다. 그러나 만 5세가 되어도 정답률이 32%에 그침에 따라 초등학교 이후에나 습득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존대동사의 경우 취학 전 유아기에 습득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주체 존대 동사 「잡수시다」의 경우 연구 대상 유아 중 만 3세 유아의 0%, 만 4세 유아의 0%, 만 5세 유아의 2%만이 정확하게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체 존대 동사 「계시다」는 만 3세 유아의 5%, 만 4세

<표 4> 유아의 상대 존대법 습득

존대법 실현 요소	존댓말	만 3세		만 4세		만 5세		F	비고
		M	SD	M	SD	M	SD		
‘해요’체	1. 안녕히 주무셨 <u>어요</u> ?	.56	.50	.66	.48	.77	.42	4.43	3 < 5
	2. 안녕히 주무 <u>세요</u>	.72	.45	.78	.42	.84	.36	2.24	
	3. 안녕히 다녀오 <u>세요</u>	.66	.48	.85	.36	.87	.33	8.52	3 < 4, 5
	4. 안녕히 다녀오 <u>셨어요</u> ?	.72	.45	.83	.38	.80	.40	1.71	
	5. 안녕하 <u>세요</u> ?	.94	.24	.97	.16	.97	.17	.80	
	6. 안녕히 계 <u>세요</u>	.76	.43	.84	.36	.87	.33	2.10	
‘하십시오’ 체	1. 죄송 <u>합니다</u>	.55	.50	.63	.48	.74	.44	3.60	3 < 5
	2. 고맙 <u>습니다</u>	.94	.24	.99	.10	1.00	.00	4.70	3 < 4, 5
	3. 다녀오 <u>겠습니다</u>	.59	.50	.72	.45	.78	.42	4.22	3 < 5
	4. 다녀왔 <u>습니다</u>	.69	.46	.75	.44	.79	.41	1.14	
	5. 잘 먹 <u>겠습니다</u>	.86	.35	.95	.23	.95	.22	3.45	3 < 4, 5

\*p < .05.

유아의 6%, 만 5세 유아의 9% 만이 정확하게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체 존대 동사 ‘편찮으시다’ 경우에는 단 한명의 유아도 정확하게 사용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격 조사 ‘께서’ 역시 습득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주격 조사 ‘께서’의 예시인 「어머니께서 우유사오라고 하셨습니다.」 문항의 경우 만 3, 4, 5세 중 한 명도 정확하게 사용하지 못하였으며 「할머니께서 배가 아프세요.」 문항의 경우 전체 연구 대상 유아 중 만 5세 유아의 극소수(1%) 만이 주격 조사 ‘께서’를 사용하였다.

## 2. 유아의 상대 존대법 습득

상대 존대법과 관련하여 격식체인 ‘하십시오’체, 비격식체인 ‘해요’체의 습득을 연령별로 분석하였으며 그 결과를 <표 4>에 제시하였다.

<표 4>에 제시된 바와 같이 상대 존대법의 습득은 비격식체인 ‘해요’체, 격식체 ‘하십시오’의 순으로 이루어졌는데 일상생활 속에 기계적으로

암기하여 사용하는 인사말이 많아 습득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만 5세 유아를 기준으로 할 경우 ‘해요’체의 경우 최저 77%(안녕히 주무셨어요?)부터 최고 97%(안녕하세요?)의 정답률을 보였으며 ‘하십시오’체는 최저 74%(죄송합니다)부터 최고 100%(고맙습니다)의 정답률을 보여 ‘해요’체와 ‘하십시오’체의 거의 모든 인사말이 초등학교 취학 전에 안정적 습득 이상의 수준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해요’체 중 어른을 만났을 때 하는 인사말 「안녕하세요?», 「안녕히 계세요.», 부모님의 출퇴근 시 인사말 「안녕히 다녀오세요.», 「안녕히 다녀오셨어요?», 잠자리 인사말 「안녕히 주무세요.», 「안녕히 주무셨어요?」의 순으로 습득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어른을 만났을 때 하는 인사말인 「안녕하세요?」는 만 3세의 94%, 만 4세의 97%, 만 5세의 97%로 나타나 거의 모든 유아들에게 정확하게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안녕히 계세요.」 역시 만 3세의 76%, 만 4세의 84%, 만 5세의 87%로 이미 만 3세부터 안정적으로 습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사말 「안녕히 다녀오세요.」는 만 3세의 66%, 만 4세의 85%, 만 5세의 87%가 정확하게 사용한 것으로 나타나 이민 만 3세에 안정적 습득에 근접하기 시작하며 만 5세경에 이르면 약 90%에 이르는 대다수의 유아들이 정확하게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잠자리 인사말 「안녕히 주무세요.」는 만 3세의 72%, 만 4세의 78%, 만 5세의 84%가 정확하게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나 만 3세부터 안정적으로 습득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안녕히 주무셨어요?」는 만 3세의 56%, 만 4세의 66%, 만 5세의 77%가 정확하게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만 3세 유아와 만 5세 유아의 응답률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안녕히 주무셨어요?」의 경우 만 5세에 이르러 습득이 크게 진전될 뿐만 아니라 안정적 습득이 이루어짐을 보여준다.

다음으로 ‘하십시오’체의 경우 감사 인사말 「고맙습니다.」, 식사 전 인사말 「잘 먹겠습니다.」, 유치원에 등·하원 시 하는 인사말 「다녀오겠습니다.」, 「다녀왔습니다.」, 잘못했을 때 하는 말 「죄송합니다.」의 순으로 습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맙습니다.」와 「잘 먹겠습니다.」는 만 3세부터 이미 안정적으로 사용하는 반면 「다녀오겠습니다.」, 「다녀왔습니다.」는 만 4세경부터 안정적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죄송합니다.」는 만 5세에 이르러서야 안정적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고맙습니다.」의 경우 만 3세의 94%, 만 4세의 99%, 만 5세의 100%로 나타나 연령에 상관없이 3~5세 유아 거의 대부분이 잘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잘 먹겠습니다.」는 만 3세의 86%, 만 4세의 95%, 만 5세의 95%가 정확하게 응답하였으며 만 3세 유아의 응답률과 만 4세 유아의 응답률 사이에 통계적으로 유의

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만 4세경부터는 거의 모든 유아들이 잘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치원 등·하원 시 사용하는 인사말인 「다녀오겠습니다.」와 「다녀왔습니다.」는 만 4, 5세에 이르러서야 70% 이상의 유아들이 잘 사용하며 안정적으로 습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녀오겠습니다.」는 만 3세의 59%, 만 4세의 72%, 만 5세의 78%가 정확하게 응답하였으며 「다녀왔습니다.」는 만 3세의 69%, 만 4세의 75%, 만 5세의 79%가 정확하게 응답하였다. 잘못을 했을 때 하는 존댓말 「죄송합니다.」의 경우 가장 습득율이 낮았다. 만 3세의 55%, 만 4세의 63%, 만 5세의 74%가 응답하였으며 만 3세와 만 5세의 응답률 사이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즉 만 5세에 이르러 습득율이 74%로 크게 증진하였으며 안정적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3. 객체 존대법 습득

객체 존대법은 부사격 조사 ‘-께’, 객체 존대명사 「제」, 객체 존대 동사 ‘드리다’, ‘여쭙다’ 등에 의해 실현된다. 객체 존대법의 하위 실현 요소 습득을 연령별로 분석하였으며 그 결과를 <표 5>에 제시하였다.

<표 5>에 제시된 바와 같이 객체 존대의 경우 객체 존대명사 「제」를 제외하고 습득율이 전반적으로 매우 저조하여 유아기에 안정적 습득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객체 존대명사 「제」의 예시문항인 「제가 할게요.」의 경우 만 3세의 65%, 만 4세의 85%, 만 5세의 88%가 정확하게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만 4세와 만 5세의 응답률 사이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만 4세부터

<표 5> 유아의 객체존대법의 습득

존대법 실현 요소	존댓말	만 3세		만 4세		만 5세		F	비고
		M	SD	M	SD	M	SD		
부사격 조사 '-께'	1. 할아버지께 선물을 드려요	.00	.00	.07	.26	.03	.17	3.80	3 < 4
	2. 선생님께 여쭙어보자	.00	.00	.07	.26	.03	.17	3.80	3 < 4
객체 존대 명사 「제」	1. 제 이름은 ○○○입니다	.05	.21	.15	.36	.23	.42	6.60	3 < 5
	2. 제가 할게요	.65	.48	.85	.36	.88	.32	10.13	3 < 4, 5
객체 존대 동사	1. 드리다	.06	.24	.19	.40	.22	.42	5.18	3 < 4, 5
	2. 여쭙다	.00	.00	.00	.00	.02	.14	1.90	

\*p < .05.

습득율이 크게 증진되며 안정적 습득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해석된다. 하지만 이름을 묻는 질문에 대한 대답 「제 이름은...」에서 「제」를 정확하게 포함시킨 응답은 만 3세 5%, 만 4세 15%, 만 5세 23%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유아들의 응답을 살펴본 결과 대부분의 유아들이 이름만을 말한 것으로 나타났다.

존대 동사 ‘드리다’는 만 3세의 6%, 만4세의 19%, 만 5세의 22%만이 정확하게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만 3세 유아의 응답률과 만 4세 유아의 응답률 사이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만 4세부터 존대 동사 ‘드리다’의 사용률이 크게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만 5세까지 그 습득율이 25%에 그쳐 매우 저조함을 보여준다. 존대 동사 ‘여쭙다’의 경우 만 5세 중 극소수(2명)를 제외하고는 거의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취학 전 유아들의 경우 존대 동사를 사용하는 객체 존대법을 정확하게 구사할 수 있는 유아는 소수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난다.

존대 부사격 조사 ‘-께’ 역시 습득율이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예시문항 「할아버지께 선물을 드려요」의 경우 만 4세의 7%, 만 5세의 3%가 정확하게 응답하여 만 4세경부터 극소수의

유아들이 사용하기 시작하지만 취학 전에는 그 습득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 I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의 목적은 만 3, 4, 5세 유아의 존대법 습득을 조사하는 것이다. 연구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만 3, 4, 5세 유아의 존대법 습득은 상대 존대법, 주체 존대법, 객체 존대법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이는 상대 존대법의 경우 다른 존대법에 비해 비교적 쉽게 획득된다고 보고한 이순형(2001)의 주장과 맥을 같이한다고 할 수 있다. 또한 객체 존대의 경우 만 2-3세에서 전혀 나타나지 않는다고 보고 한 이귀옥(1997)의 연구결과와도 맥을 같이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좀 더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각 존대법의 하위 실현 요소별로 습득율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를 들면 주체 존대법의 선어말어미 ‘-시’의 경우 89%의 유아가 정확하게 응답한 반면 상대 존대법 중에서 잘못을 했을 때 사용하는 존대표현인 「죄송합니다.」의 경우 만 5세 유아의 74%만이 정확하게 응답하여 주체 존

대법·-시'의 습득율보다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유아의 존대법 습득을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주체, 상대, 객체 존대법의 하위 실현 요소별로 자세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둘째, 주체 존대법 습득을 조사한 결과 하위 실현 요소에 따라 습득정도에 큰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주체 존대 선어말 어미 '-시'는 만 5세 유아의 대다수(약 90%)가 정확하게 사용할 정도로 습득율이 높았으나 존대명사의 경우 습득율이 50%에 미치지 못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존대동사와 존대 주격 조사 '-께'는 습득율이 10%에도 미치지 못하는 등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 결과는 선어말 어미 '-시'의 경우 유아의 존대법 습득에 있어 겸양 표현 '-요' 다음으로 만 2세경에 일찍 나타난다는 선행연구 결과와도 맥을 같이한다고 할 수 있다(김영주, 1994; Lee, 1993). 또한 주체 존대명사의 경우 습득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난 본 연구결과는 만 3세 유아들의 자발적 발화에는 「진지」 등과 존대명사가 출현하지 않는다고 보고한 이귀옥(1997)의 연구결과와 연장선상에 있다고 할 수 있다. 더 나아가서 본 연구 결과를 통해서 존대명사의 습득이 만 5세까지도 저조한 것으로 밝혀졌다. 그리고 존대동사와 주격조사 '-께'의 습득이 매우 저조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데 이러한 연구 결과는 「진지」, 「연세」 등의 존대 명사와 「편찮으시다」를 포함한 존대 동사의 경우 유아뿐만 아니라 초등학교 학생들 역시 바르게 사용하는 경우가 많지 않다고 밝힌 선행 연구결과와 맥을 같이한다고 할 수 있다(김봉국, 2009).

셋째, 상대 존대법 조사 결과 '해요'체와 '하십시오'체의 순서로 습득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거의 모두 75% 이상의 습득율을 보여 취학

전에 안정적 습득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판단된다. 상대 존대법의 높은 습득율은 상대 존대법의 경우 인사말과 관련된 내용이 많은 것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즉, 우리나라 가정에서 어머니들이 일찍이 자녀들에게 예절 교육의 차원에서 '감사의 인사말, 이웃 어른을 만났을 때 하는 인사말' 등 다양한 인사말을 강조하여 가르치고 유아들이 이들 인사말을 기계적으로 암기하여 사용하기 때문인 것으로 유추된다(김명순 외, 2008). 하지만 본 연구를 통해 상황 별 인사말의 습득 정도에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를 들어 '하십시오'체의 감사의 인사말 「고맙습니다」는 만 3, 4, 5세 유아 대부분이 정확하게 응답을 한 반면 사과의 인사말 「죄송합니다」는 만 3세 유아의 과반수 정도 그리고 만 5세 유아도 74%만이 정확하게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바른 인사말의 사용은 타인과 어울려 살아가는 사회생활에 있어 지켜야 할 예절이자 기본생활습관이기 때문에 인사말이 요구되는 다양한 상황을 파악하고 유아들에게 체계적으로 지도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문향숙, 2005).

넷째, 객체 존대법의 습득 조사 결과 객체 존대 명사 「제」를 제외하고 객체 존대 동사, 부사격 조사 '-께'의 습득은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만 3세 유아를 대상으로 존대법을 조사한 결과 '드리다'와 같은 존대동사가 나타나지 않는다고 보고한 이귀옥(1997)의 연구결과와도 맥을 같이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귀옥(1997)은 주체존대와는 달리 객체존대가 아주 늦게 습득되는 것은 객체존대는 주체 존대와 달리 성인의 언어 투입이 극히 적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또한 문장 내에서 주어와 목적어나 부사격 사이의 사회적 관계에 대한 유아의 이해가 낮은 것으로 해석되었다. 하지만 본 연구결과 객

체 존대 명사「제」의 경우 만 5세 유아의 88%가 정확하게 쓸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객체 존대법이라 할지라도 존대표현을 사용해야 하는 다양한 상황에 지속적으로 노출되고 지도를 받을 경우 습득이 가능함을 보여준다.

본 연구는 그동안 체계적으로 조사되지 않았던 만 3세~5세 유아의 존대법 습득을 주체 존대법, 상대 존대법, 객체 존대법으로 나누어 체계적으로 조사함으로써 유아기 존대법 교육에 대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였다는 점에서 연구 의의가 있다. 구체적으로 취학 전 만 5세는 모국어 발달이 어느 정도 완성기에 이르며 자신이 속한 사회집단 구성원들과 소통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는 수준에 다다르게 된다. 언어 예법인 존대법이 발달한 우리나라에서 유아들이 조부모, 이웃 어른, 교사 등 주위 어른들과 원활하게 소통하기 위해서는 존대법을 익히고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를 통해 존대어휘(명사, 동사)와 존대격조사(께, 께서)를 통한 존대법 습득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결과를 통해 밝혀진 취학 전 유아의 존댓말 발달 특성은 유아 교사들이 유아들에게 존댓말을 지도함에 있어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으리라 기대된다.

과거와는 달리 핵가족 중심의 가정에서 유아들이 부모가 조부모에게 존대어를 사용하는 것을 접할 기회가 크게 줄어들게 되었고 또한 점점 더 많은 유아들이 일찍이 유아교육기관에 다니고 있는 현 시점에서 유아교육기관에서의 존대법 교육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2007 개정 유치원 교육과정이 존댓말 교육을 사회생활 영역뿐만 아니라 언어생활 영역의 말하기 교육내용의 하나로 신설한 것도 유아기 존댓말 교육에 대한 사회의 요구를 반영한 것이라고 판단된다(교육과학기술부, 2007). 하지만 2007 개정 유치

원 교육과정의 경우 언어교육과정 말하기 영역의 하위 내용으로 ‘어른께 존댓말을 사용한다’를 제시하고 있을 뿐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어떻게 가르쳐야 하는지에 대한 구체적 지침은 제시되고 있지 않은 실정이다. 따라서 존대법 교육의 범위를 수립하기 위한 후속연구를 실시할 필요가 있으며 또한 유아의 발달에 적합하고 효과적인 교수방법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적합한 교수 방법으로 역할 놀이, 그림책 읽기 등을 추천할만하다. 영유아기 존대법 습득을 조사한 선행 연구들이 이야기 글에 존대어 표현이 많이 들어 있는 그림책 읽기가 영유아의 존대법 습득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밝히고 있기 때문이다(이귀옥, 1997; Kim, 1997). 따라서 앞으로 실험연구를 통해 그림책 읽기 활동이나 역할극 등이 실제로 영유아의 존댓말 교육에 효율적인 교수방법 인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 참 고 문 헌

- 교육과학기술부(2007). **유치원 교육과정 해설 I, II, III**. 교육과학기술부.
- 교육과학기술부(2007). **유치원 지도서**. 교육과학기술부.
- 김명순·강옥경·임양미(2008). 유아의 존댓말 사용과 어머니의 인식 간의 관계. **유아교육연구**, 28(5), 273-293.
- 김봉국(2009). **2009년도 강원 지역어 조사 보고서**. 서울: 국립국어원.
- 김세원(2009). 초등학생 높임법 사용 실태 분석을 통한 지도 방안 연구. 부산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김영주(1994). 높임말 사용의 지도. **초등국어교육**, 4, 27-50.
- 김우진(2006). 중국 카작족 존댓말에 대한 사회언어학적 분석. **비교문화연구**, 12(2), 5-56.

- 김정신 · 정혜은 · 조희진 (2004). **유아예절교육**. 서울: 교문사.
- 김진희(2001). 초등학교 아동의 대우법 지도 방안 연구. **초등국어교육**, 11, 103-130.
- 문향숙(2005). 아동의 언어 예절에 관한 연구. **어문논집**, 33, 5-30.
- 박덕유(2006). **학교문법론의 이해**. 서울: 도서출판 역락.
- 박상수(1994). 한국어 존대법의 형태점검. **현대문법연구**, 4(1), 115-139.
- 박찬옥(1994). 유치원 도덕교육의 방향모색. **유아교육연구**, 14(1), 51-73.
- 이귀옥(1997). 유아의 언어적 특징과 교수법 : 존대법 습득 현황 조사. **언어연구**, 1, 23-36.
- 이미령(1995). 유아예절교육의 효과. 숙명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이순형(2001). 한국 아동이 초기에 획득한 문법적 형태소의 종류 및 획득 시기. **아동학회지**, 21(4), 1-18.
- 이영자(2009). **유아 언어발달과 지도**(개정판). 서울: 양서원.
- 이은화 · 김영옥(2008). **유아 사회 교육**. 서울: 양서원.
- 이행숙(2000). 어린이집 교사가 인지한 예절교육필요도에 대한 연구. **한국여성교양학회지**, 7, 59-79.
- 임홍빈 · 안명천 · 장소원 · 이은경(2007). **바른 국어 생활과 문법**.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출판부.
- 조명환(1988). **한국아동의 언어획득연구 : 책략모형**. 서울: 서울대학교출판부.
- 조은주 · 최일선(2008). **유아교육기관에서의 유아 생활지도**. 서울: 창지사.
- 주영애 · 이영애(1999). **부모와 교사를 위한 유아의 생활예절**. 서울: 양서원.
- 주영희(2001). **유아 언어 발달과 교육**. 서울: 교문사.
- Brown, R., & Ford, M. (1961). Address in American English. *Journal of Abnormal and Social Psychology*, 62(1), 375-385.
- Ervin-Tripp, S. (1972). On sociolinguistic rules : Alternation and co-occurrence, In J. Gumperz and D. Hyems (Eds.), *Directions in sociolinguistics* (pp. 213-250). New York : Holt, Rinehart and Winston.
- Geertz, C. (1976). *The Religion of Java*, Chicago :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Hymes, D. (1971). Sociolinguistics and the ethnography of speaking. In E. Ardener (Ed.), *Social Anthropology and Language* (pp. 47-94). London : Routledge.
- Ide, S. (1982). Japanese Sociolinguistics : Politeness and Women's language. *Lingua*, 57, 357-385.
- Kim, Y. J. (1997). The acquisition of Korea. In D. Slobin (Ed.), *The cross-linguistic study of language acquisition : Vol. 4*. (pp. 335-443). Hillsdale, NJ : Lawrence Erlbaum Associates.
- Lee, C. (1993). The acquisition of mood indicators in Korean. In S. Kuno, J. Whitman, Y.-S. Kang, I.-H. Lee, J. Maling, & Y. Kim (Eds.), *Harvard studies in Korean linguistics : Vol. 5* (pp. 41-61). Seoul : Hanshin.
- Slobin, D. I. (1973). Cognitive prerequisites for the development of grammar. In C. A. Ferguson & D. I. Slobin (Eds.), *Studies of child language development* (pp. 175-208). New York : Holt, Rinehart & Winston.
- Slobin, D. I. (1985). The crosslinguistic evidence for the language making capacity. In D. I. Slobin (Ed.), *The crosslinguistic study of language acquisition : Vol. 2. Theoretical issues* (pp. 1157-1256). Hillsdale, NJ : Lawrence Erlbaum Associates.

2010년 8월 31일 투고, 2010년 11월 8일 수정  
2010년 11월 11일 채택